

몇가지 중요한 논제들...

Some Important Themes

윤승중 / (주)원도시건축
by yoon Seung-Joong

서 / 1997년의 상황

1997년은 불안과 혼란 가운데 시작되었다.

OECD 가입과 월드컵 주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지위가 약속되고 빛나는 21세기를 맞게 되리라는 기대는 96년말에 이르러 급격한 외채증가와 200억불이 넘는 국제수지적자로 크게 반전되었고 이어 새 노동법 파문으로 확산되면서 큰 혼란과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노동법 파동으로 시작된 1997년은 한보 부도사건을 필두로 거대재벌기업들의 잇따른 도산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국가부도의 위기를 몰고 왔으며, 결국 IMF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으로 한국경제는 국제관리하에 놓이게 되는 최악의 국면에 직면한다.

그동안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적 신용을 지켜오던 한국경제가 이처럼 급속히 파국을 맞게 된 것은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처리과정에서 정부가 위기관리 대응에 실패한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국가에 대한 국제신용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나, 거시적으로는 WTO체제 상황 아래서 선진 경제대국들이 요구하는 산업구조 조정에 미숙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지적자의 누적과 과도한 외채를 안게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의 시점에 우리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긴급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우선은 급속한 국제신용추락으로 국제금융의 유통이 차단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이의 여파로 국내 모든 경제활동이 급격히 냉각되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될 전망이다. 당장 IMF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저성장 체제는 모든 생산과 고용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건설투자가 급격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의 모든 분야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됨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난국 속에서 지난 일년동안 지겹게 계속되어온 대선을 목표로 한 정치논쟁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정신을 가다듬어 경제국면의 대 전환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갈 정치지도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가가 신용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국민간의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신뢰가 확보되고, 큰 이상을 공유할 때 가능할 것이다.

국내건축 개관

이처럼 총체적 사회불안과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국내건축 상황은 최근 IMF등장 이전까지는 이런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제까지의 타성에 따른 경향을 보여준다.

년초에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위기상황이 구체적으로 예감되었으면서도, 이처럼 사회전반에 여력을 준 것은 년전에 결정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로 88올림픽으로 인한 총체적 발전을 다시 기억하게 하였고, OECD가입 등으로 선진국으로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건축계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새로운 이슈의 제기 보다는 수년래의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몇가지 중요한 논제들을 통하여 1997년을 개관해 본다.

- 현정부가 슬로건으로 삼고 추진한 개혁드라이브로 인해 정치, 사회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건축관련의 여러 행정제도의 간소화, 합리화라는 원칙적 합리에 따라 진행된 결과들이 하위법에까지 현실화되는 진전을 보게 되지만, 그것의 본질적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행정제도의 간소화, 자율화라는 대원칙으로 많은 제도의 전환이 절차의 축소, 이관 등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전에 있던 심의내용의 실질적 변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내규의 차이로 오히려 일관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건축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건축가의 역할까지도 일반 건설과정에 통합되는 한 부분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 이와 관련하여 수년래 지속되어온 건설회사의 설계검입문제는 아직도 핫 이슈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당국이 WTO 체제하에서 설계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 건설회사들이 주장하여 제기되고, 자본, 경영능력의 우위, 그리고 시공에서 축

적된 기술과 경험이 설계에서부터 피드백 된다는 명분으로 일단 설득력이 있어 보였으나, 설계분야의 강한 반발로 현재는 자사투자건물에 한한다는 조건으로 제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은 실용적, 기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매우 창의적인 작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논리와는 충돌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두 주체는 서로 대위적으로 존재해 왔다. 즉 설계조직의 최종 결정권자는 건축가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형 건설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독립적인 대형설계조직들의 실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의 텍스트가 되고있는 일본에서도 오히려 설계조직의 독립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 UR체제에 의한 건축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 개방은 이미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1997년에 일정 규모이상의 관공공사 개방을 시작하여서 2000년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민간공사에 까지 전면적 개방이 진행되며 WTO각서에 따라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경기가 입찰공고문에 영문이 이미 병용되고 있다.

건축분야는 UR체제에 의해서 세계화가 촉진되고, 국제교류가 증대하며, 건축가의 직업적 신임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입장도 있으나, 세계 여러나라들 간에는 커다란 이해의 차이를 보인다. 유럽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건축가연맹은 건축의 문화적, 지역적 종속성을 강조하여 미국이 이끄는 WTO와 견해차이를 보이며, 건축이 일반적인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적, 인간적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다.

1997년에도 많은 설계경기 등의 프로젝트에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건축가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외국건축가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다만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가 초대되거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특수대형 프로젝트의 기술력 등의 경우는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나, 많은 경우 내용보다는 외국의 브랜드나 디자인 취향, 표현기술 등이 선호되는 경향이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더구나 지방공공청사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건축까지도 외국 설계회사에 맡겨지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여진다.

- 올지로 재개발 프로젝트를 필두로 수십개의 크고작은 설계경기가 행해졌다.

설계경기를 통하여 새 얼굴의 건축가팀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대다수의 설계경기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보다 창의적이고 또 훌륭한 설계안을

찾기위한 본래 설계경기의 목적보다는 잠음없이 설계자를 선택하기 위한 형식과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설계경기는 다수에게 기회가 개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런 기회에 도전하는 많은 응모자에게 큰 희생이 요구되므로 모든 설계경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근 시행되는 설계경기들이 형식상으로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며, 또 심사에서 결정된 당선자에게 설계권이 주어지는 등 우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실개입을 차단할 명분하에 심사 하루전에 심사위원에게 통보하는 등의 운영방식은, 미리 그 프로젝트를 깊이 이해할 기회가 배제될 뿐 아니라,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대형프로젝트의 경우는 심사의 형식상의 공정성보다도 전문적인 안목과 올바른 가치 평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단체 '설계경기 운용규준'이나 건교부의 '설계경기 지침'에서 요구하는 심사위원의 사전발표는 정실 개입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연구와 평가 방향등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모든 설계경기에서 응모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욱 정당하고 진지한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 수년내 대학입시에서 건축관련학과가 인기 도에서나 지원자의 수준에서 최고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곧 건축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성고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과정에서 자율성과 선택성의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계열별 통합이나, 복수전공제 등을 도입하면서 전공 필수학점을 절반 수준인 40학점으로 낮춘 것은 건축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의 확보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차별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자 각기 대학별로 생존전략을 세우고 체질개선을 위해 자생적 노력을 경주하며, 그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대되는 일이다. 다만, 건축의 경우 그 차별화 전략의 향위가 한결같이 디자인에 오리엔트되고 있고 그 디자인 전략이 이미 정해진 제한된 커리큘럼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그 본래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학교마다 전략이 마련되어지고 그 완성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이며, 가시적 효과로 몇몇 대학은 외국대학교 교수교환뿐 아니라 학점까지도 공유하는 진전을 보인 것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건축가교육이라는 관점에 볼 때 스튜디오를 통한 설계교육 중심으로 건축학 석사를 수여하는 건축대학원의 개설과 설계교육을 담당할 실무건축가가 초빙되는 객원교수, 겸임교수제도의 도입 등이 확산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예술종합학교와 증권건축가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서울건축학교 등 다양한 건축가교육프로그램 등의 출현은 매우 환영할만 하다.

- 21세기를 향한 국제화, 세계화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90년까지 꾸준히 추구되어온 전통성의 논의가 근래에 이르러 그 가치의 모색이 하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건축의 분야에서 세계화에 대응하여 전통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일간지에서 전통건축의 담사가 행하여지고 있는가 하면 순수예술 뿐만 아니라 응용미술 쪽에서의 한국성의 모색 등은 건축계의 70년대의 열기와 흡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며 97년 한해동안 출판된 건축관련 도서가 150여종에 이르고 건축교양과 문화관련이 50%를 상회하는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건축기행도서가 베스트셀러안에 거론되기도 하고 건축관련 저널이 이제 50여종에 이르고 보면 그 열기의 근간이 건축의 대중화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후 5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다시 이 전통의 모색을 거론하고자 함은 6, 70년대는 전통으로, 80년대는 한국성으로, 9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서울성으로 그 이름이 변화하였지만 그 모색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독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그 모색의 흔적이 과거와 같지 않으며 세계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도 거론되지 않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당장에 물리적 결과로 보여지길 바라기보다는 그에 관한 논의가 축적되어 그간의 결과였던 양식론이나 공간론적 해결과 같은 시대적인 해석이 꾸준히 제기되어 검증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97년 세계건축의 향위는 빌프린의 문화진보 사이클에 어느 에포크로도 설명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문화진보의 속성이 그러하듯 근본적으로 진보와 리얼리즘이 양립, 공존하면서 양상의 본질은 내비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표출의 결과로써 진보는 하이테크로 리얼리즘은 네오모던으로 탐색되지만 유형학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으로 표현된다.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징후는 그간 건축계에서 탐색해온 경구조(Light Construction)화 조형적 가치들의 하이브리드한 형태(Hybrid Form) 구조로 대분하여 꼽을 수 있다.

건축의 경구조화의 경우는 뉴욕현대미술관에

서 1932년 International Style전. 1988년 해체주의 건축전으로 개최되었던 연을 같이하여 1995년에 경구조전에 개최되어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근년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몇몇 선진적 건축가들의 건축들에서 결과를 보이면서 본격적 이슈로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경구조화의 논리적 근거가 때론 리얼리즘으로, 때론 진보적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의 신축성을 보이는 것이 그 이유가 되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디 콘스트럭션의 연속선상에서 하이브리드한 형태 구조를 주목할 만한 징후의 하나로 보는 것은 현재에는 모더니즘과 같이 세계건축을 지배할 만한 어떤 조형적 트렌드를 기대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특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건축의 흐름과 견주면서 근년에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활발하게 이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더욱 자신의 언어들로 구사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 / 1998년에 거는 기대

1998년을 우리는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한 상황을 맞는다.

국제신용의 추락으로 외환 순환 경로가 막힘으로 시작된 위기가 총체적인 경제활동의 경색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위기국면의 탈출을 위한 긴급처방이 우선 시급하지만 거시적으로 미래에 대응하는 균형 감각이 간과될 것이 우려된다.

전술한 대로 IMF시대의 저성장 정책과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건축분야는 크게 압박을 받고 위축될 것이다. 88올림픽 특수 이후 크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던 건축계는 오히려 이후 10년간 매우 호황을 누렸으며, 이런 호황이 오히려 건축작업을 통한 고뇌의 기회를 상실케 했다는 견해도 성립된다. 저성장의 시대는 사회전분야에서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미래를 향한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건축의 속성은 세계대전을 두 번 치르며, 또 세계적인 공황을 겪으면서 건축의 논리가 성숙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적 의미를 잘 소화해 왔음을 본다. 이런 관점에서 앞날의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간 유보해 두었던 건축적 사고들이 새롭게 검증되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방과 국제화 전략을 위한 제도의 정비, 세계화와 정체성 확보, 정보 인프라의 구축, 통일국토를 대비하는 구상 등 미래를 열어가는데 기초를 만드는 일, 지구환경 회복에 동참하는 일들이 이 불황시대에 우리 건축계 모두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될 것이다.